

	보도자료 (2019. 3. 8 금)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	
---	--	---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② 에너지·자원」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양혜영 선임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사회적 합의가 안될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연되어 2050년이 돼서도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가동되고 미세먼지와 에너지 수급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관적인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 개선과 전기 요금 현실화 등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에너지·자원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02-2224-9811, jeonghoon@nafi.re.kr)

※ 2019년 3월 11일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양혜영 선임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우리 사회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예측된 미래는 비관적이었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상승 등의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별도 추진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문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수 있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연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탄소세나 환경 재난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팀은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개선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수요관리 실패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에너지 고통 사회’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통일이라는 돌발변수 발생 시 북한 지역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수요관리 실패 또는 수요급증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석탄화력발전을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비관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 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기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을 맡은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 비용이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과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가 구현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에너지·자원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02-2224-9811, jeonghoon@nafi.re.kr)